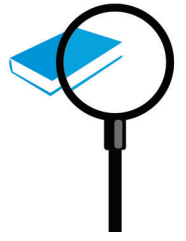


# '세기의 기증' 이견희가 사랑한 명작 순례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이견희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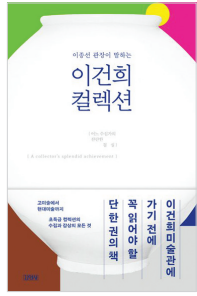
이종선 지음

청자 양각죽절문 병, 백자 달하아리, 정선 필 인왕제색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백자 청화죽문 각병...

이들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보 유물이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보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견희'라는 인물과 연계된다. 바로 이견희 특급 컬렉션들이다.

지난 2021년 삼성그룹 유족들이 기증한 이견희 컬렉션은 세간의 화제였다. 지역에서도 명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동명의 전시를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를 연계한 순회전이였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김홍도의 '추석부도', 도자, 회화, 불교공예품 등 옛 미술품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아름다운 유산-이견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난 인연'을 주제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김환기, 오지호, 이응노, 이종섭, 임직순 등 5명의 작품 30점이 나왔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을 주제로 관객들을 맞았다. 천경자를 비롯한 4명의 지역 작가와 유영국, 박대성, 김은호 등 근현대 미술사에 빛나는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견희 컬렉션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작품은 일반적인 기증작과는 차원이 달랐다. 화려한 면면들은 '세기의 기증'이라는 찬사를 받고도 남았다.

이견희 컬렉션에 숨겨진 수집 이야기와 명품 순례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저자는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이종선 전 서울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이 관장은 삼성문화재단의 호암미술관 학

예연구실장을 거쳐 실질적 책임자인 부관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이견희 컬렉션이 어떻게 수집됐는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컬렉션 수집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과정을 함께했던 그가 수집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와 기증품 내역 등을 들려준다.

그는 "이견희 회장은 사업경영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수집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주관과 주장이 있었다. 명품제일주의, 그것도 '초특급'을 최우선시한 그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견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은 1만2023건 2만3000여 점에 이른다. 실로 방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규모도 규모지만 국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60점에 이른다.

이 관장은 이견희 회장은 작품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가격에 상관없이 좋은 작품인지를 최우선으로 봤다고 한다. 초일류 기업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초일류 컬렉션'을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한국 고미술 부분에서 보면 조선시대 미술품들이 이견희 컬렉션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고려청자에 심취했던 부친과 달리 백자를 좋아했다. "말수 적은 성정이 덩달한 백자와 잘 맞았는지 30대 시절부터 소리 소문 없이 백자와 목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국보인 '백자 청화매죽문 향아리', '백자 청화죽문 각병'은 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근현대미술 부분에서는 35점의 작품을 조명한다. 규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동양화를 계승한 김은호, 이상범을 비롯해 그 뒤를 이은 김기창, 장우성의 작품이 있다. 이후의 세대들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개척한 화가들이다. 남도 출신인 김환기, 천경자 뿐 아니라 유영국, 이종섭, 장욱진은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이다.

조각분야의 작품들도 손색이 없다. 권진규, 김중영 등 외에도 현대미술의 백남준 작품까지 다채

롭다. 저자는 "기증된 미술품들을 적기에 확보해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담아낼 새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임무는 우리에게 남겨진 크나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한다.

<김영사·3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안 미로 작 '구성'



'청자 양각죽절문 병'

##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수잔 시마드 지음, 김다희 옮김

"인간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인간을 구원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나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나무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산림학과 삼림 생태학 교수 수잔 시마드는 나무의 연결성과 소통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시마드의 TED 강의를 조회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번에 시마드 교수가 펴낸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는 오래된 나무의 중요성을 세삼 일깨운다. 저자는 지난 2015년 어머니 나무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저자가 말하는 어머니 나무는 숲속의 오래된 나무를 지칭하는 것 같다.

시마드 교수는 900킬로미터에 걸친 기후 구배를 포괄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9개 기후 지역에서 어머니 나무를 절단하는 대신 보존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보존했을 때 산림 재생력은 물론 탄소 저장량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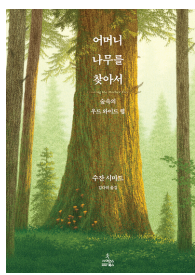
나무의 자연적 재생 또한 촉진되고 목목의 서리 피해도 덜 입으며 화재위험도 감소한다. 뾰족한 곳에서 목목 성장률은 다소 감소하지만 목목의 정착과 생존은 늘어난다.

저자는 오래된 나무는 숲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다시 말해 큰 소통의 허브가 된다. 우리 인간들이 웹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듯이 나무들은 뿌리와 진균 등의 군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탄소를 주고받으며 속삭인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어머니 나무는 숲을 기른다. 어머니 나무는 숲을 되살아나게 한다"며 "이 책을 읽마리 삼아 숲 속을 나아가다 여러분의 어머니 나무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BTS 아미 서울을 가다

마리나 시모넨코·정준 지음

BTS 아미들에게 한국은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한류 팬들에게 동경의 도시로 꼽힌다.

한국이 궁금한 한류 팬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서울의 곳곳을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BTS 아미인 마리나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는 정준 작가가 함께 쓴 'BTS 아미 서울을 가다'는 서울을 새롭게 발견하는 진절하듯 고맙고 맛있는 서울 여행 안내서다.

갓 20세가 되던 2019년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와 좌충우돌하면서 서울 여행을 했다는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은 정준 작가는 K-POP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책 작성을 계획했다. 마리나도 이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유용한 아이디어를 보태는 등 여행서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마리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보고물렛 의과대학교에 다니던 2019년 혼자 한국을 여행한 뒤 2020년 한국 유학프로그램 KGSP에 합격해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다니고 있다.

책은 그동안 나왔던 서울 투어 가이드북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의 유구한 문화와 정 많은 한국인의 정서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서울 문화여행 에세이를 표방한다.

서울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타원형으로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광하는 코스인 '관광서킷'을 소개한다. 책 서문에는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세 가지 꿀팁도 담았다. <청동거울·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물류로 읽는 세계사

다마키 도시아키 지음·노경아 옮김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다원화됐다. 더는 국가나 개인 내부에 고립된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진 시대,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물류 시스템의 발달과 연결은 필수적이었으리라. 이에 비해 물류사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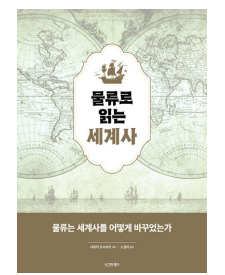
"물류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과감한 발상에서 출발하는 책이 나왔다. 교토 산업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한 다마키 도시아키가 지은 '물류로 읽는 세계사'는 물류로 패권국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영국이 태평했던 팩스 로마나를 방불케 하는 '팩스 브리타니카'를 실현한 원인이 산업혁명이 아닌 물류혁명이라는 생각은 흥미롭다.

"무슬림 상인들은 당나라 초기부터 푸젠성의 취안저우에서 무역 활동을 했다. 당의 수도인 장안까지 무슬림 상인이 들어와 있었으니, 당의 대표적 항구인 취안저우에 무슬림 상인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자는 무슬림-당나라 상인, 이슬람 왕조를 비롯해 바이킹의 국제교역, 발트해 무역, 무역 중심지 희망봉, 네덜란드의 교역사 등 세계 전역을 둘러보며 물류역사의 변천사를 이야기한다. 특히 논문 이상의 방대한 그림자료,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해 지정학적·수치적 이해까지 돕는다. 구체적인 페니키아인의 무역로와 동선을 비롯해 1300년대 튀르크의 수출입 관세액의 변화, 이슬람 아바스 왕조(750-1258년)의 최대 영토, 상세한 무역 경로 등이 그림으로 제시돼 있다.

저자는 각 장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서 특히 국제무역에 종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세계 역사학계에서 최근 발견된 물류학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쉽게 풀이해, 역사물류학 개론서처럼 가볍게 읽을 수도 있다. <시그마북스·1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